

제 13 회 전국 민속 예술 경연대회

부 산 시 대 표

동래지신밧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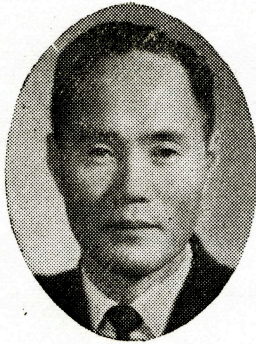
일 시 : 72. 10. 20~23

장 소 : 대전시 공설 운동장

출전단체: 사단법인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부 산 직 할 시

인 사 말 씀



중추가절 그윽한 국화향기 속에서 오천년 면면히 이어 온 조상들의 멋과 얼을 한곳에 모아 이곳 유서 깊은 한밭벌에서 민족의 잔치를 베풀게 된것을 참으로 이의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힘의 대결에서 경제대결로 경제대결에서 문화대결로 나아가서는 중대한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기는 지름길은 조상이 남긴 찬란한 문화의

터전위에 주체성있는 민족문화를 개발진흥시켜 문예증흥을 도모하는데 있다가겠습니다.

이번 대회에 동래지방 특유의 민족인 「동래지신 밭기」를 작년에 이어 두번째 선보입니다.

팔을 들면 춤이 된다는 이고장 동래 사람의 민족이 날로 고조되어가는 민족문화창달과 증흥에 보탬이 될것을 믿으면서 아울러 이 대회에 참가하신분들에게 200만 부산 시민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1972. 10. 20

부 산 직 할 시 장 박 영 수

[任 員]

團長	韓 元 錫
考證	辛 祐 彥
企劃	郭 永 郁
演出	徐 國 英
美術	千 在 東
涉外	文 致 彥
報 導	蔡 蓮 植

[出演者 名單]

旗手	張 實 根	51才
四大夫	文 章 垣	56〃
八大夫	盧 振 奎	68〃
河童	朴 振 實	61〃
捕手	李 南 先	65〃
집主人	金 永 賢	58〃
큰머슴	辛 生 根	57〃
풀머슴	李 賢 卿	15〃
村老 A	金 德 珍	59〃

村老 B	金 東 吉	50才
村 女	朴 鳳 浩	61〃
각 시	孫 浩 景	63〃
地神놀이	梁 克 銖	54〃
쟁 쇠	梁 世 珠	51〃
장고 A	邊 同 植	51〃
장고 B	金 一 浩	52〃
장고 C	李 周 熙	49〃
북 A	權 再 業	54〃
북 B	金 相 龍	50〃
북 C	金 千 守	49〃
징	金 榮 守	45〃
小鼓 A	金 光 波	58〃
〃 B	金 永 達	51〃
〃 C	朴 海 守	62〃
〃 D	鄭 相 俊	50〃
〃 E	金 盛 昭	56〃
〃 F	金 德 善	54〃
胡 笛	金 東 植	45〃
小道具	孔 益 道	61〃
〃	朱 德 根	70〃

★ 第3科場 金生員宅 地神풀이 ★

① 大廳 地神풀이

地神 地神이 내려온다 하늘이 생겨서 甲子年 땅이 생겨서 乙丑年 甲子 乙丑이 생긴후에 天地日月이 생겼네

天地日月이 생긴후에 人間世上이 생겼네 人間世上이 생겼으면 성주본이 없을소냐 성주본이 어디메냐 慶尙道 安東땅

제비원이 본이로다

제비원에서 솔씨 받아 거제 봉산에 던졌네 이 솔을 길러낼 때 삼정승은 물을 주고 六 판서를 길러내니 낮이면 太陽받고 밤이면 이슬맞아

그 솔이 점점 자라나 타박솔이 되었네

타박솔이 자라나 소부동이 되었네

소부동이 자라나 대부동이 되었네

대부동이 자라나 한장목이 되었고

그 솔이 점점 자라나 도리기둥되었네

그 솔이 점점 자라나 천장목이 되었네

그 솔이 점점 자라나 성주집 가재가 되었구나

이 나무 한주를 베어다가 성주님 집을 지어보자

앞집의 김대목아 뒷집의 박대목아

실흔 세가지 연장망태 아주녕칭 짙어지고

치치달아 치치달아 거제 봉산을 치치달아

나무 한주를 잡아보니 어허 그나무 못쓰겠다

까막까지 집을 지어 성주집에 부정하다

그나무 한주를 제쳐두고 또 한 나무를 잡아

아보니

어허 그것도 못쓰겠다

산새 들새 알을까지 성주집에 부정하다

그 나무 두주를 제쳐두고 또 한나무를 들

러보니

어허 그나무 좋을시고 나무의 내력을 들어

파라

나무의 이치를 들어파라

東쪽을 뻗은 가지 청제장군 모시었고

南쪽을 뻗은 가지 적제장군 모시었고

西쪽을 뻗은 가지 백제장군 모시었고

北쪽을 뻗은 가지 흑제장군 모시었고

中間에 솟은가지 황제장군 모셨으니

어허 그 나무 좋을시고

여파라 목수의 거동 파라

이나루 작별을 하여보자

실흔세가지 연장 망태 산지사방 흠어 놓고

갓은벗어 등에 지고 옷은 벗어 남에걸고

오곰대님 바짝 매고 옥도끼들 물러메고

좌우로 노와서서 十畝만치 물러나가

五畝만치 뛰어들어 한 찰 치고 두 찰 치니

나무 넘는 소리파라 天地가 요란하고

四方이 진동한다

(후 령)

나무 작별을 다했으니 나무 재단을 하여보자

쓰렁 쓰렁 툽질이야 한토막 덩벽끊어

이집 기둥을 마련하고 또 한토막 덩벽끊어

이집 남장을 마련하고

또 한토막 덩벽 끊어 이 집 중보를 마련

하고

또 한토막 덩벽 끊어 이집 소래기 마련하고

또 한토막 덩벽 끊어 이집 상보를 마련하고

좁은 가지 골라서 四方 추련을 마련하고

잔가지 골라서 육십사기 연목 빼자

(후 령)

나무 운반 하여보자 洞內안에 초군들아

군내안에 역군들아 첫닭 울어 일어나서

먼동 터서 밥을 먹고 보리밥 초박밥 올막

졸막 싸가지고

치치달아 치치달아 거제 봉산을 치치달아

큰 나무는 팔목도 다음 높은 사목도

작은것은 한들씩 나무 운반 다했네

(후 령)

집터 하나 보러가자

이 집터를 보러머는 어떤 풍수가 제일이나

전라도라 李풍수 경상도라 金풍수

자네쇠는 무슨쇠냐 나의쇠는 금쇠다

너의쇠는 무슨쇠냐 나의쇠는 옥쇠다

금쇠 옥쇠 합세하여 합경도라 치치달아

白頭山 올라가서 天地 가에다 쇠를 놓고

윤도판을 손에 들고 四方을 둘러보니

白頭山 정기가 떨어져 두만강이 생겼네
 두만강 정기가 떨어져 강원도 금강산 생겼고
 금강산 정기가 떨어져 임진강이 생겼네
 임진강 정기가 떨어져 평안도 묘향산 생겼고
 묘향산 정기가 떨어져 대동강이 생겼고
 대동강 정기가 떨어져 황해도 구월산 생겼고
 구월산 정기가 떨어져 세룡강이 생겼고
 세룡강 정기가 떨어져 경기도 삼각산 생겼네
 삼각산 정기가 떨어져 한강이 생겼고
 한강 정기가 떨어져 충청도 계룡산 생겼고
 계룡산 정기가 떨어져 백마강이 생겼고
 백마강 정기가 떨어져 전라도 지리산 생겼고
 지리산 정기가 떨어져 영산강이 생겼고
 영산강 정기가 떨어져 경상도 태백산 생겼고
 태백산 정기가 떨어져 낙동강이 생겼고
 낙동강 정기가 떨어져 東萊金井山 생겼고
 金井山 정기가 떨어져 이동네 주산이 생겼네
 앞산의 내령받고 뒷산의 주령 잡아
 이집터를 잡았으니 좌청룡 우백호 百子千孫
 할 터라 (후렴)

집터 하나를 닦아보자
 洞內 방내 초군들 군내안에 역군들
 첫닭 울어 일어나 먼동 터서 밥을먹고
 늦가래 늦줄 매고 나무가래 짚줄 매고
 낮은데는 돌우고 높은데는 낮추어
 집터 하나 닦았네 어기더기 상사니야
 (후렴)

이 집 한채를 지어보자
 오행으로 물반놓고 금개구리 주주 십어
 주주 위에 기둥세워 기둥위에 납장걸고
 납장위에 증보걸고 증보위에 소래기
 소래기 위에 상보걸고 四方으로 추련 빼고
 육십사귀 연목걸고 오색토로 알매치고
 배극으로 기와엮고 사모에 풍경달아
 동남풍이 진들 부니 풍경소리가 요란하다
 (후 령)

대명당에 집을 짓고 수명당에 우물파고
 아들 낳으면 효자낳고 딸을 낳으면 열녀낳고
 동방석에 명을 빌고 강태공에 나이 빌어
 신팔십 후팔십 일백육십으로 짐지하고
 석순에 북을 빌며 물밖은 흘러들고
 비북은 흘러간다 (후 령)

② 큰방 성주풀이

모셔오자. 모셔오자. 이집 성주를 모셔오자
 한송정 술을 배어 조그맣게 배를 모아
 앞강에다 띄어놓고 앞 이물에 관세음보살
 뒷 이물에 지장보살 손풍에 돛을달고
 술렁술렁 배를 저어 황토섬을 찾아가서
 성주님을 모셔다가 이집 가정에 좌정할 때
 요부 토주 장군님은 후원으로 좌정하고
 팔만사천 조왕님은 정지로 좌정하고
 남부일원 산신님은 명당으로 좌정하고
 선망 후망 조상님은 옥당으로 좌정하고
 기록위소 성주님은 상량으로 좌정하여
 금년 해분 모모년에 이집의 대주양반
 동서 남북 다 다니도 남의 눈에 꽃이 띄고
 말소리 마다 향내나고 자국자국 운기 주소
 울리소 울리소 만대유전을 울리소
 (후렴)

③ 各房 치장놀이

이 집 짓던 석달만에 이집 좋다 말을 듣고
 온갖 사람이 구경온다 이 집 치장을 둘러봐라
 앞치장 둘러보니 구리기둥 늦주방 광채가 찬
 란하고
 후원을 둘러보니 청룡 황룡이 놀고 있다
 큰방 치장을 둘러보자 각지장관 소라반자
 능아도벽이 좋은시고 팔간병풍 둘러쳐
 평새끼는 기는 방 매새끼는 나는 방
 셋별같은 저 요강 발치끝에 밀쳐 놓고
 짚단같은 원앙침 머리맡에 놓였고
 공단이불 비단요 아게자게 제였네
 큰방 치장 그만두고 물방치장 둘러보자
 싱그향내 나는 방, 봉두각씨 기른 방
 아들 애기 낳거들랑 효자 충신 마련하고
 딸 애기 낳거들랑 열녀 효부 마련하소
 길리소 길리소 만대 유전 길리소
 물방 치장 그만두고 청방치장 둘러보자
 집채 같은 그릇장 보기 좋게도 놓였고
 바위같은 저 뒤희 위치 좋게도 놓였다
 선반위에 둘러보니 목 짜르다 자라병
 목 길었다 황새병 허리 짚쑥 장구병
 둥글 둥글 수박병 인삼주를 부어라
 불노주를 부어라 교자상 자개판에

〔 地 神 밧 기 解 說 〕

「地神밧기」라는 것은 옛날부터 해마다 陰歷正月보름경에 嶺南 各地方 農民들 사이에 行하여져 오는 一種의 假裝行列의 놀이이다.

이 「地神밧기」에 가장 重要한 役割을 하는 것은 四大夫 八大夫 捕手로서 四大夫 八大夫는 커다란 冠을 쓰고 긴 담뱃대를 물고 마치 큰 儀式 때와 같이 겹겹하게 느릿느릿하게 걸으며 맨 첫머리에 서고 그뒤에는 망태기에 죽은 썩을 넣고 나무로 만든 총을 둘러맨 捕手が 따라오고 여러가지 탈(假面)을 쓴 많은 사람들이 징 북 쟁과리 장고 等 樂器를 盛히 쳐울리면서 洞屺에서도 富

裕한 사람의 집으로 차례 차례 들어가서 地神을 밧아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地神을 밧을 때에는 반드시 「종고종은 地神아 雜鬼雜神은 몰알(아래)로 千幸萬福은 이 집으로」라고 소리를 하면서 그 집의 마당 부엌 또는 광에서 밧고 걸으며 춤을 추는 것이다.

이것은 地神을 鎮壓하여 年中에 無事하기를 비는 뜻인데 이렇게 地神을 밧으면 그 집 主人은 謝禮로서 술 穀類 金錢을 내어 준다 이렇게 해서 모여진 金品은 그 部落의 共同 事業에 쓰기로 되어있다.

〈崔常壽著「韓國의 歲時風俗」에서〉

〔 東萊 地神 밧기에 對하여 〕

“東萊 地神밧기”는 일찌기 嶺南一帶에 있었던 것과 大同小異하나 본래 東萊 사람들이 즐겨 주던 特有的 밧기춤이 流入되어 많은 사람들의 耳目을 끌었던 것이다

地神을 밧는 이들은 마을과 집안의 安泰를 빌고 나아가서는 豊年 들기를 祈願하는 農民들의 놀이로서 農閑期이자 名節이 끼어든 正月 대보름을 前後하여 盛行하였던 것이다

元來 이 地神을 밧는 사람들은 四大夫 八大夫 河童 村老 等이 參與하였다고 傳해지고 있으며 《地神밧기》란 이름에서도 聯想할수 있는바 뛰고 춤추며 祝願의 卷이를 읊어온 것이 본래의 原形이라고 보겠고 壬亂 後(약300여년前) 마을 사람들이 더 재미있게 劇的으로 構成한듯 각씨를 登場시킴으로써 두 양반과 각씨 그리고 河童 사이에 葛藤을 이르키게 하였으며 또 身分은 보잘것 없지만 언제나 양반 行勢만 하려드는 河童을 끌려 주려는 相對役으로 捕手를 登場시켜 觀衆들로 하여금 더욱 興味를 느끼고 웃을 수 있는 餘有를 주게 하였다 또 한가지 捕手が 부엌에서 훔쳐 온 주걱과 조리를 집 주인에게 팔았으나 이

돈을 四大夫가 가로채어 호주머니에 넣으므로 河童은 도박판을 벌여 도로 빼앗아 가는등 양반을 嘲弄하기 위한 諷刺가 꼭 들어있다 오늘의 “東萊地神밧기”는 지금으로부터 約 6,70年 前의 것을 이 놀이의 原形으로 設定하여 再現하고자 한다

“東萊 地神밧기”의 各科場을 보면 아래와 같다

- 第一科場 主山 地神놀이
- 第二科場 堂山 地神놀이 (생략)
- 第三科場 某生員宅 地神놀이

- ① 마당놀이
- ② 大廳 地神놀이
- ③ 큰방 成主놀이
- ④ 各房 치장놀이(생략)
- ⑤ 조왕(부엌) 地神놀이
- ⑥ 샘(우물) 地神놀이
- ⑦ 장독 地神놀이
- ⑧ 광(穀間) 地神놀이 (생략)
- ⑨ (뒷간) 地神놀이 (〃)
- ⑩ (大門) 地神놀이
- ⑪ 주신(酒神) 놀이

마지막 酒神풀이를 마치면 主人이 장만한 음식으로 크게 대접을 받은 후 作別 인사를 하고 물러난다.

끝으로 東萊地神밧기의 이번 裝置에 있어

서는 “主山 地神풀이”와 “某生員宅 地神풀이”를 同一 舞臺에서 出演해야하는 狀況과 舞臺 四面에 있는 觀察의 事情을 생각하여 骨格 舞臺(Frame Setting)를 試圖하였다.

<釜大教授 徐 國 英>

地神풀이 歌辭

★ 第1科場 主山 地神풀이 ★

地神 地神 地神아 主山地神을 울리자
天地玄黃 생긴 후에 日月星辰이 밧았다
山川이 개탁하고 만물이 번성할 때
함경도라 白頭山은 두만강이 둘러있고
두만강 정기가 떨어져 강원도 금강산 생겼고
금강산 정기가 떨어져 임진강이 생겼고
임진강 정기가 떨어져 평안도 묘향산 생겼고
묘향산 정기가 떨어져 대동강이 생겼고
대동강 정기가 떨어져 황해도 구월산 생겼고
구월산 정기가 떨어져 세룡강이 생겼고
세룡강 정기가 떨어져 경기도 삼각산 생겼다
삼각산 정기가 떨어져 한강이 생겼고
한강 정기가 떨어져 충청도 계룡산 생겼고

계룡산 정기가 떨어져 백마강이 생겼다
백마강 정기가 떨어져 전라도 지리산 생겼고
지리산 정기가 떨어져 영산강이 생겼고
영산강 정기가 떨어져 경상도 태백산 생겼고
태백산 정기가 떨어져 낙동강이 생겼다
낙동강 정기가 떨어져 東萊 金井山 생겼고
金井山 정기가 떨어져 이 洞內 主山이 생겼네
今年해분 某年某月某日에 主山님께 發願이요
이 洞內 家家戶戶, 나갈때는 半집지고
들어올 때는 온 집지고
부귀영화 安過泰平 접지하여 주옵소서
어히어루 主山님 만대유신을 누리소

(후렴) 잡귀 잡신은 몰알로 만복은 이리로

★ 第2科場 堂山 地神풀이 ★

地神 地神 地神아 堂山地神을 울리자
東方에 청제당산 南方에 적제당산
西方에 백제당산 北方에 흑제당산
中央에 황제당산 五方堂山을 울리자
今年해분 某年 某月某日에 堂山님께 發願이요
이 洞內 洞民들은 男女老少 막론하고

短命者 壽命長壽, 薄福者 富貴功名
無子者 子孫昌盛, 病苦者 即得快差
農事者 壯元하고

商業者 財數大通 旺氣大通 주옵소서
어히어루 堂山님 만대유신을 누리소

(후렴)

만편 진수를 차려놓고 일배 일배 부일배 세
상만사가 여길세

(후렴)

칭방치장 그만두고 사랑방 치장을 둘러보자
東쪽벽을 둘러보니 도원도리 편시춘
봄 풍경이 완연하다

南쪽벽을 둘러보니 녹음방초 우거졌으니
여름풍경이 완연하다

西쪽벽을 둘러보니 황국단풍이 물들었으니
가을풍경이 완연하다

北쪽벽을 둘러보니 백설이 분분하여
겨울풍경이 완전하다

손님이 오시며는 골패 잡패로 대접하고
사돈이 오시며는 바둑 장기로 회롱하소
울리소 울리소 만대유전을 울리소.

(후렴)

④ 조왕 (부역) 地神풀이

어히여루 地神아 조왕지신 울리자
큰솔은 닷말치 작은솔은 서말치
셋별같은 솔 두 채 둥그랗게 걸렸네
살간(선반) 치장보아라 통영판 개다리판 도리판
멋졌고 연잎 술 반간지 간지 간지 하간지
아기자기 놓였고 이 솔에 공양지어 부모봉양
하여보자 (후렴)

⑤ 우돌 地神풀이

어히여루 지신아 용왕지신 울리자
동방정제 용왕님 남방적제 용왕님
서방백제 용왕님 칠년 대한 가물음에
물이나 칠령 실어주소
구년 장마 홍수에도 물이나 청칭맑아주소
(후렴)

⑥ 장독 地神풀이

어히여루 지신아 장독지신 울리자
꿀 치자꿀 치자 이장독에 꿀 치자
강원도 벌이 날아와 이장독에 꿀치네
꼬오장은 매워야 지령장은 째아사
막장은 달아야 된장은 누털어사
(후렴)

⑦ 도장 (곡간) 地神풀이

어히여루 지신아 도장지신 울리자

개리보자 개리보자 천석 만석 개리보자
쌀 천석도 개리고 잡곡 천석도 기리자
막우자 막우자 온갖 벌레 막우자
귀 증생도 막우자 증벌레도 막우자

(후렴)

⑧ 마굿간 地神풀이

어히여루 지신아 마굿간 地神을 울리자
길이자 길이자 우마 대마를 길이자
소를 낳거든 와대를 낳고 말을 낳거든 용
마를 낳고

작은 머슴을 불러서 소죽을 끊어라
소 배도 불리고 말 배도 불리자
울리소 울리소 만대유전을 울리소

(후렴)

⑨ 정남 (뒷간) 地神풀이

어히여루 지신아 정남지신 울리자
막우자 막우자 온갖 질병 막우자
설사병도 막우고 이질병도 막우자 토사곽
란도 막우자 (후렴)

⑩ 삼짝 (大門) 地神풀이

어히여루 지신아 삼짝지신 울리자
막우자 막우자 온갖 도적을 막우자
총든 도적도 막우고 칼든 도적도 막우자
간큰 도적도 막우고 발큰 도적도 막우자
(후렴)

⑪ 주신 (酒神) 풀이

에이여루 地神아
술의신도 울리자
금년 해분 모모년에
이술 한잔 목거들랑
동서남북 다단녀도
재수대통을 짐지하소
갱자 갱자 갱서방
어떡치고 술먹자
미역국에 딸나고
조루(두부)국에 집난다

口述者 : 梁克銖 · 金永達



韓國古美術協會釜山支會

業所名	所 在 地	電 話
高麗民藝社	釜山市 中區 光復洞 1街 31	☎ 2755
二 和 堂	釜山市 中區 東光洞 4街 25	☎ 0957
七 寶 舍	釜山市 中區 光復洞 1街 6	☎ 5486
萬 好 藏	釜山市 中區 富平洞 1街 10	☎ 0821
成 寶 堂	釜山市 東區 草梁洞 1街 6	☎ 2914
高 麗 堂	釜山市 東萊區 溫泉洞 212	☎ 0360
寶 古 舍	釜山市 中區 寶水洞 1街 125	☎ 6050
岸 史 堂	釜山市 中區 大廳洞 1街 36	☎ 3720
千 玉 堂	釜山市 中區 中央洞 2街	☎ 3847
友 石 堂	釜山市 中區 大廳洞 2街 38	☎ 4897
韓 鮮 民 藝 社	釜山市 中區 昌善洞 2街 47	☎ 2203
高 藝 堂	釜山市 中區 寶水洞 1街 35	☎ 2209
東 方 書 院	釜山市 中區 寶水洞 1街 36	☎ 1455

민족문화 꽃피워서 문예진흥 이룩하자!